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벧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중간 지도자 느헤미야 I

(느헤미야 2장 1 - 8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한 지도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설령 지도자가 된다 해도 능력있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듯 중간 지도자로서 상하의 인간관계가 중요함을 교훈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 하는 느헤미야는 중간 지도자의 역할을 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도자들은 이 중간 지도자에 속합니다. 그러나 중간 지도자의 역할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 지도자에게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간 지도자는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창조적이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그렇다고 상관의 산울림만 내면 무능자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 지도자는 권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중간 지도자에게는 책임과 의무는 과다하고 권리는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중간 지도자였습니다. 후일엔 예루살렘 총독이 되었지만 아직도 유다는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주전 458년(아닥사스다 왕 7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성전 재건을 서두르며 성을 수축하려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이를 방해하며 아닥사스다 왕에게 투서를 했고(스4:11 - 16), 아닥사스다 왕은 즉시 조서를 내려 이 일을 중단시켰습니다(22절). 느헤미야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요구한 것 이상의 것을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가 기대한 대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아니다”라는 대답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라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반드시 응답하실 터이니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처럼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않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3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왕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3)정직

기지를 발휘하다 보면 때때로 신실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정직했습니다. 왕이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크게 두려워했지만 왕에게 “조상의 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3절). 느헤미야는 왕이 바른 대답 듣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을 중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5절).

중간 지도자는 자기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최고 지도자(boss)는 중간 지도자의 계획뿐 아니라 전체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중간 지도자로서 최고 지도자와의 관계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최고 지도자를 당황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일이 성공할 수 있고, 어떤 것이 거절당할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중간 지도자는 이런 면에서 창조적이 되어야 합니다.

(4)기도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사람의 모델입니다. 그는 왕에게 대답하기 전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4절), 시급히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5)계획

느헤미야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고, 어떻게 그것을 성취할지를 조심스럽게 계획했습니다.

그는 먼저 정보 수집을 했습니다. 왕의 산림감독 아삽의 이름까지 알고 그에게 조서를 내려 제목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후에는 성을 수축키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브라데강 서편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 자신이 유다까지 가는 길에 안전보장을 요청했습니다(7절). 그리고 필요한 것을 왕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6)하나님 의존 신앙

느헤미야는 계획을 세우면서 동시에 기도했습니다. 소원대로 왕의 허락을 받았을 때 느헤미야는 그 결과가 자신의 치밀한 계획 때문이 아니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셨다”(8절) 라고 했습니다.

그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러나 자기 지혜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성취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술 따르는 관원의 요청을 허락했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을 배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한 것 이상의 것을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가 기대한 대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아니다”라는 대답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라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반드시 응답하실 터이니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처럼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 중간 지도자로서 성공한느헤미야

(1)충성

본문은 왕에 대한 느헤미야의 충성심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없습니다만 그의 성공 배후엔 이것이 깔려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은 만세수를 하읍소서”(3절)라고 한 것은 위선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왕에 대한 관심을 그의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많은 중간 지도자들이 이 점에서 실패합니다. 공개적으로 자기 상관을 비난하거나 또는 상관의 결점과 약점을 드러내어 상대적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더 위대해지는 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충성하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충성은 틀린 것도 무조건 옳다 하고 도와주는 것을 말하거나 어떤 일을 반대만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충성해야 할 대상을 위하여 일을 하는 한 그것은 충성이 됩니다. 우리는 협조적 방해꾼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2)기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기지를 가지고 일을 처리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에 왜수색이 있느냐는 왕의 갑작스런 질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 “13년 전 에스라가 성을 재건하다가 왕명에 의해 중단되었으니 왕은 앞뒤를 알고 했어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왕의 마음은 단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합니다(3-5절). 왕은 그의 슬퍼하는 이유를 이해했고 도울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소원을 정치적 차원이 아닌 개인적 차원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도록 허락 받았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을 언급하지

2005년 전반기 교사교육 및 연합기도회

4월 12일(화) 오후 7시 101호

2005년 전반기 교사교육 및 연합기도회가 4월 12일(화) 오후 7시 101호(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교사교육 및 연합기도회는 교사로 임명 받은 성도들이 맡기신 생명들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사랑으로 보살피기 위해 열리는 재충전의 장으로 교육과 뜨거운 기도가 이어진다.

모든 교회 학교 교사들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교사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누구나 참석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다. 이런 모임의 강사로는 김도일 박사(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교수)가 서게 되며 "교회학교와 교회부흥"을 강의한다.

오늘날과 같은 다원화 시대에 우리 교회교육이 당면하는 여러 가지 도전과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하여, 그리고 가르침의 권위가 실증된 현실에서 권위 있는 가르침에 대하여, 무엇보다 이 시대의 교회교육의 현실에 따른 문제와 도전에 따른 해결책으로서 "영성과 지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신앙교육"의 원리에 대하여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1기 세계선교대학 개강

4월 14일(목)저녁 7시10분 602호에서

제1기 세계선교대학이 4월 14일(목) 저녁 7시 602호에서 열린다. 세계선교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번 세계선교대학의 개강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1기 세계선교대학은 수강 대상은 선교위원 장·단기선교 헌신자, 남선교회/여전도회 일원, 교회학교 교사, 선교에 관심있는 성도 누구나 참여하여 수강을 할 수 있다. 1기 세계선교대학은 4월 14일(목)부터 6월 23일(목)까지

10주간 계속된다. 세계선교대학 등록비는 10,000원이며 사무국에서 접수하고 있다.

<순서>

- 6:30 ~ 7:10 : 식사(801호)
- 7:10 ~ 7:30 : 찬양
- 7:30 ~ 8:30 : 강의 1
- 8:30 ~ 8:40 : Coffee Break
- 8:40 ~ 9:30 : 강의 2
- 9:30 : 폐회

일정	과목	강사
4/14	개강예배/세계선교 오리엔테이션	이종운 목사/박흥성 목사(총회세계선교부간사)
4/21	선교의 성경적 기초	이종운 목사
4/28	선교학 개론	김영등 교수(장신대)
5/12	총회 선교정책과 현황	신방현 목사(총회세계선교부총무)
5/19	선교하는 하나님	한철호 선교사(선교한독상임총무)
5/26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김중성 선교사(선교학박사, 도미니카 선교사)
6/2	세계선교 역사	남정우 목사(서울여대교회, 전 러시아 선교사)
6/9	지역사회와 세계선교	곽재응 목사(선교학박사, 전 볼리비아 러시아 선교사)
6/16	선교의 문화적 관점	문상철 원장(세계선교연구원장)
6/23	이종운 목사/공훈 목사(총회세계선교부간사)	

아멘관현악단지휘자임명

아멘관현악단을 지휘하던 손영호 집사가 개인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임범창 선생을 임명 하였다.

임범창 지휘자

- 1953년생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졸업
-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졸업 (M.A)
- 러시아 가나안 신학교 졸업(M. div)
- 러시아 국립 게르친 사범학교 러시아 문 화학(음악, 7학기) 수료
- 러시아 상 페테르부르크 장로교회 찬양대 지휘
- 러시아 상 페테르부르크 장로교회 선교사



아멘관현악단모집

주일 3부 예배 시 아름다운 선율로 주님께 찬양 드리는 아멘관현악단이 많은 사명 다하고자 단원을 추가 모집한다. 세례교인으로 악기 연주가 가능한 성도는 누구나 가능하며 모집부문은 바이올린 : 3명, 비올라 : 1명, 첼로 : 1명, 클라리넷 : 1명, 오보에 : 2명, 호른 : 2명, 타악기, 편곡자이다. 아멘 관현악단으로 함께 영광돌리기를 소원하는 성도는 사무국으로 신청 바란다.

금주의 성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6)

An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because anyone who comes to him must believe that he exists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earnestly seek him. (Hebrew 11:6 [NIV])



▶ 유·초등부 티셔츠

▼ 성인 유니폼



한마음 한가족 축제 유니폼 확정

-각 다락방 및 교회학교별 신청만 받아-

오는 5월 5일 밀알학교에서 개최되는 제6회 한마음 한가족축제 유니폼이 사진과 같이 확정되었다. 한마음 한가족축제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세재장로)는 지난 4월 3일 3부 예배 후 1차 준비위원회를 소집하고 각 부서의 부, 차장을 소개하고 축제 개요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유·초등부는 중견의 티셔츠형태 유니폼을 유지하고, 중·고등부 및 대학, 청년부 그리고 성인 유니폼은 새로운 상하의 튜리닝을 착용하되 백립은 백색, 청립은 청색의 티셔츠를 착용하기로 했다.

준비위원회는 성인용 유니폼은 상하의 세트에 10,000원, 유·초등부용 티셔츠는 2,000원의 저가에 판매기로 확정하고 모든 공급은 다락방 및 교회학교 단위로만 신청을

받아 공급한다고 한다.

본 유니폼은 앞으로 여름성경학교 및 교회 공식 행사에 착용케 되며 1인 1매에 한하여 공급하게 된다. 각 다락방 및 교회학교는 사전에 참가인원 및 티셔츠, 사이즈 별 숫자를 파악하여 4월 17일까지 준비위원회로 제출해야하며 4월 24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성인용 유니폼은 85, 90, 95, 100, 105, 110의 여섯 사이즈로 주문을 받으며 유치부를 포함한 유·초등부 티셔츠는 나이에 따라 5, 7, 9, 11, 13호로 제작된다. 부득이 성인용 유니폼을 구입하지 못하는 분들은 팀 색상에 맞는 티셔츠를 착용하면 된다고 한다.

순례 스테판 수련회를 마치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최형열 집사(스테반회총무)

민음의 등역자이며 기도의 한 지체인 서울교회 스테반 회원들이 4월 4일~5일, 1박2일 동안 평택진위고등학교(교장 권혁우 집사)에서 수련회를 가졌다.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숨은 봉사를 하는 우리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었다.

목자가 안락으로 갈등을 일으키며 흔들리고 있는 지금은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이며, 교회 헌당을 앞두고 은 성도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절제하는 때이다. 이에 스테반회는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일이 하나도 없음을 인식하고 간절한 기도하였다.

위임목사님의 "우리가 어떻게 할까?"의 주제 특강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웠다. 서울교회 스테반회의 명예를 걸고 "공인의 자세로 받은 대로 하며, 중의 자세로 주께 하듯 하고, 감사와 자원하는 자세로 영광으로 알고" 봉사하라는 말씀은 나태하고 둔감한 우리들

에게 새 바람을 불어 넣어 주신 영감 있는 말씀이었으며,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더욱 충성스럽게 직임을 수행할 것을 마음 깊이 다짐하였다.

꿈같은 하루 밤을 지새우면서 새벽녘까지 대화를 나누는 J집사님은 정말 기도의 동지임을 새삼 느끼며 감사를 드린다.

지도록사 한 목사님의 새벽 강단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렸다. 넓은 운동장과 함께 실내 강당에서의 우렁찬 응원을 시작으로 시작된 레크리에이션 시간은 스테반회 가족들이 한 가족 한마음이 되어서 얼마나 웃음바다를 이루었는지... 청백으로 나누어 약 2시간동안 진행된 이 시간은 전체 몸 플기와 단체 경기 7종, 그리고 개인경기 2종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달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백군의 승리였지만 우리 모두 건강함과 기쁨이 충만하였다.

영육이 아울러 강건해진 우리의 마음은 더욱 풍성해졌으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더욱 주께 충성하기로 결심해 본다.

아름다운 삶

이용식 목사(9, 10교구 지도)

얼마 전 촉망받는 한 여배우의 자살로 사회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세상 사람들이 일생을 투자하여 얻기를 바라는 인기와 미모와 명예와 돈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최고의 가치들을 포기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자살이 9번째 이고, 세계 4위에 이를 정도로 우리 사회에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살을 하고자 하는 데는 사회적인 무관심과 소외 경제적 불안 그리고 병리적인 우울증 등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생명에 대한 경의심이 없습니다.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파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생명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보다 더욱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삶의 한계를 느낄 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만큼의 처절한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죄악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살은 최후의 선택도 아닙니다. 생명은 신비로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생명을 주신 창조자를 찬양하는 삶을 죽을 힘을 다해 힘쓰는 삶이 더욱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만나보았습니다

당신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햇살 가득한 봄날 오후 개나리가 우리 교회 앞뜨락(한티공원)에 노란 물을 뿌려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찾집을 찾았다.

그 곳은 서울교회 목회자 전학세미나가 열리는 월요일에

만문을 여는 찾집이다.

목사님들께서 먼 길 오시느라 피곤하실 때, 식사 후 또는 휴식시간에 따뜻한 차를 대접하는 아름다운 휴식 공간이다.

내 안이함보다는 목사님들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며 존중하는 권사님의 삶은 언제나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며 14년 동안을 한결 같이 차 봉사자로 헌신 하시는 권사님, 언제나 웃으시며 그 입술에는 찬양이 떠나지 않는 그 분은 별명도 스마일 권사님이시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지만 차 맛내는 데는 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며 언제나 믿음, 사랑, 소망의 비율이 적절히 배합 되어야 아늑한 맛을 낸다고,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맛이 떨어진다고 봉사하는 젊은 집사님들에게 "예"를 강조하시며 오시는 목사님들을 예수님 대접 하듯 늘 정성을 다하시는 권사님의 웃는 모습은 봄날의 꽃보다 더 아름다웠다.

지금은 호텔 수준의 커피숍이지만 14년 전 YMCA에서 차 봉사 할 때는 물통이 하나여서 물을 교회에서 끓여서 몇 번씩 아니 그 곳까지 옮겨 오기도 하였다고 하시며 그때 교생으로 지금의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하였노라고 감격해 하신다.

지금은 내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 봉사하니 꿈꾸는 것만 같다고 ...14년을 하루같이 봉사하신 스마일 권사님께서서는 지나 온 흔적을 더듬으면서 목사님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대접 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정성껏 모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며 차 봉사로 선택 받은 그 기쁨이 지금까지 영육 간에 강건함을 유지하시는 것 같다.

무엇이나 새 것을 찾는 요즘 세상에 서울 교회 찾집은 78세 되신 권사님의 단골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간혹 못나가 기라도 하시며 목사님들께서 안부전화를 하셔서 쉬지도 못하신다고 하신다.

봉사 할 때 마다 은혜 받는 그 기쁨은 일해 본 자만이 아는 것 이라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의 체험들이 간증으로 쏟아져 나온다.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치시는 커피 권사님! 멀리까지 퍼지는 구수한 커피 향이 목사님들 모두를 파스하게 하며 그 찾집을 나오면서 78세 어린 얼굴에서, 파릇파릇 피어나는 마치 젊은 청년의 싱그러운 같이 김명숙 권사님의 애너지는 사랑이 능력 되어 나눔과 섬김으로 파릇파릇 번 구석까지 피어나리라.

신동기(편질부)

독서후기

하늘에 속한 사람

전신일(대학부)

먼저 이 책을 읽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버지의 권유에 의해 읽게 되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선교에 대한 큰 도전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중국 허난성 마을의 원이라는 청년이 1974년 부친의 기적적인 암 치료로 인해 예수를 영접한 후, 중국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며 겪은 고난과 많은 기적들을 서술한 것으로 마치 신 사도행전과도 같은 책입니다.

그는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공안 당국에 수없이 체포 당하며, 상상을 초월한 고문과 매질을 당하는 감옥 안에서도 죄수와 간수들을 전도합니다. 또한 투옥의 시기 가운데 무려 74일의 금식 기도를 드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원 형제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만 의탁하며,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전하는데 힘썼습니다.

이 책을 읽는 가운데 원 형제의 수많은 고난과 충성된 헌신과 수없는 기적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느낄 수 있었고, 한편으로 지금도 선교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제 곧 해군으로 입대하게 되는 저도 마치 파울과 같은 이 중국의 전도자처럼 군 선교사로서 그 생명을 다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편집았어요

성도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 남노회 소속 동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학순 목사라고 합니다.

급년에 서울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당회장 이종운 목사님과 당회원 그리고 선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그리고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서울교회 총회가 실시하는 목회자 생활비 평준화 정책에 앞장서서 이렇게 어려운 목회 현장을 돌보아 주시니 너무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용기를 가지고 목회현장을 섬기며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가꾸고 거두어서 사랑을 받는 교회에서 사랑을 나누어 주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서울교회가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서울교회 거룩한 부흥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김학순 목사 올림

천국시민양성 - 교회학교 부흥의 현장을 가다 ①

야근과 보아스가 되길 원하는 장년 2부



이동권 집사(장년2부 부림)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나은니라 (고전 14:19)”

서울교회 성도 중 사십대의 장년을 대상으로 주일 오전 10시에 모이는 성경 공부반, 장년2부를 섬기기 4달이 되었습니다.

한 주 내내 교제 연구를 해보지만 정작 공부 시간이 되면 과연 제가 교사로서 일만마디 방언보다 나은 다섯마디 말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곤 합니다. 그러나 “심고 물을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임을 믿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장년 2부의 현재 출석수는 110여명이며, 교사는 부장 김상철, 김사무엘, 성준경, 오정수, 유승순, 이갑진, 임상현 장로와 주경자, 최원자 권사입니다. 교사들은 매주일 아침 8시30

분에 교사회와의 기도, 나눔의 시간을 갖는데, 수업을 위해 각자가 준비한 것을 소개하거나 열린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은 매우 진지하고도 은혜로우서 늘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교사들은 주중에도 전화심방, 인터넷심방, 상담, 중보기도로 바쁘답니다. 인생 선배로서 신앙과 생활을 인도하는 선생님들의 제자 사랑이 세상의 어느 학교에 비할 수 없이 깊습니다. 40대 또래 집단 수업 시간은 화기애애하고 우정이 넘칩니다. 대형교회 속에서의 외로움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와 응답, 삶의 변화를 체험하면서 주님 안의 한 지체임을 확인하는 기쁨이 큼니다. 무엇보다 매주 참석하는 교회학교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씩 배우고 실천까지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학생들은 말합니다. 수업 후, 김운호 목사님으로부터 다음 주 공과교육을 토대로 교사들은 또다시 일주일간 새로운 공과의 주제를 매일 묵상하면서 주의 성전의 “야근과 보아스”가 될 주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부족함이 없기를 지혜와 능력의 주이신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만 명 교회학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꿈,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길 믿고 감사드립니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0일(주일)밤부터 12일(화) 밤까지 새문안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한다. 14일(목)에는 장로교 신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한다.
- 발령: 박조현 집사(13교구) 우리투자증권 IT기획팀 팀장
- 득남: 김한성 집사(12교구), 김영주 집사 이혜순 권사(이들) 이은아성도 가정 4월5일
- 발간: 정치는 집사(9교구) 월간지 anyone golf 발간
- 주간식당봉사: 엘리아남선교회(4월10일) 모세 남선교회(4월17일)
- 금주의 식사: 류재두 성도 이임자 성도 가정 (자녀 결혼을 감사하며)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중국인터넷방송 - (http://www.c-highway.com)

미래를 결정짓는 시기라는 압박감에 오래도록(古) 마음이 괴로워(苦) 신앙심마저 흔들릴 위험이 높을(高) 때인 고3. 이렇게 영적으로 연약해지기 쉬운 고3 학생들과 수험생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지난 3일 고등부는 ‘수험생을 위한 결연기도회’를 개최했다.

수험생들에게 힘이 되는 결연기도회



권사님은 '진학 및 취업을 위해', 학부모 대표인 최차순 집사님은 '수험생의 건강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곧이어 학생마다 장로님 1분, 권사님 2~3분, 대

이날 고등부 주관으로 열린 수험생 결연기도회는 수험생들에게 장로, 권사, 대학부선배로 구성된 영적 후원자를 짝지어주는 방법을 통해 1년간 꾸준히 영적, 실제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맺어진 인연으로 수험생들이 수험기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시험의 노예가 되어 허덕이며 보내는 대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영적 부흥을 일궈낼 수 있도록 기도와 나눔으로 돕고자 하는 것이 수험생 결연기도회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목표이다.

학부 선배 1명이 결연을 맺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결연자들은 자신의 학생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비전을 세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런 후원이 한번의 행사에서 끝나지 않도록 많은 결연자들은 학생의 연락처와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적어놓아 지속적인 중보기도를 약속하고 실제적인 도움의 길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자리가 없어 외부에서 의자를 대량 공수해 올 정도로 고등부실을 가득 메운 수험생과 수험생 학부모들은 분반 공부가 끝난 10시 40분부터 본격적인 수험생 결연기도회를 시작했다. 우선 윤봉준 장로님이 '1년 동안 믿음생활을 위해'라는 주제로 전체 기도를 드렸고, 이어서 황정임

고등부는 이번 기도회의 취지를 이어 10월 2일엔 2차 수험생 결연 기도회를, 11월 23일 수능시험일에는 학부모 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까지 수험생의 각 결연자들은 깊은 기도의 후원으로 수험생들의 앞길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다.

고은실(편집부)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7학기 목회자 세미나 · 16학기 서울성경대학 · 열린 프로그램을 위하여
2.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3. 환란 중에 있는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도록
4. 독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땅이니 빼앗기지 않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일미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오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